[장원/장관상] 나의 학교 앞 그러나 전쟁중 (시제:피 땀 눈물)

김지용 / 용산고등학교 / 3학년

나의 학교 앞은 긴 회벽으로 덮인 최전방
벽 위엔 나의 사상처럼 꼬불거리는 철조망
매일 등교할 때마다 나는 국경을 엿본다

'경고 d a n g e r 던지면 w a r n i n g '
내가 자물쇠를 던지면 총알이 날아올까
시험지로 비행기를 접어 날리면 미사일이 날아올까
나의 성적은 뒤에서 세는 게 빠르므로
D는 D W는 W

선생님은 여전히 전쟁중이라 말하고
나는 선생님과 전쟁중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누구와 싸우는 걸까

나의 좌측에는 창문 가득 벚꽃이 끝이 없고
나의 우측에는 친구가 엎드려 자고 있다

방학이 끝나고 친구는 탱크처럼 커졌지만 나는 여전히 포탄만 한 몸으로 어디론가 던져졌다 나의 장점이 맨땅에 헤딩이라 말하기엔
나의 머리는 항상 아팠다

미군기지 안에 있는 포구들은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
우산도 쓰지 못해 녹슬어가는 입구
뜨거운 함성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뛰어가고 얼굴을 보면 다 우리 형 같이 생겼다
다시 보니 나를 닮았다

탱크가 지나갈 때면 차들이 학교 앞을 지나지 못하네
여기는 평화가 아닙니까 말하는 용산 미군 아저씨

나는 한국말이 웃겨서 웃었어요

횡단보도에서 나는 어떤 색을 밟고 건널까
모두가 한 색만 밟고 건너는데

제23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수상작 <운문>

친구는 정답 나는 오답
답을 정하는 건 선생님
명왕성은 이제 태양계가 아닌 것 같이
이곳은 이제 평화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이
친구는 오답 나는 언젠가 정답
선생님이 내는 간단한 문제조차 오답을 내는 나,

이곳은 최전방
나는 포복하며 학교를 간다

[차상] 증명사진 (시제:증명사진)

박이나 / 안양예술고등학교 / 3학년

카메라 셔터가 조여지고
모든 빛들은 귀퉁이부터 저물어간다
숱없는 눈썹을 부끄러워하는 내가
앞머리를 올린다
한 올씩 털을 그릴 때마다
낯선 소녀가 자라난다

사각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 사람
언제까지 나는 필경사처럼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따라써야 하나요
얘야, 모서리는 그래야만 한단다
나는 구석이었으므로
웃으세요라는 말이 낯설다
누구나 나의 울음을 좋아했으니까
셔터가 오므린 손을 풀고
낯선 소녀가 한 걸음 물러선다
사각형의 넓이를 알면
내가 갇힌 곳의 크기도 잴 거 같아
손가락으로 길이를 예측하다 혼난 기억
사진을 찢고 나온 긴장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싶다
만들어진 내가 웃는다

[차하] 일요일에 생긴 일 (시제:일요일에 생긴 일)

김수정 / 안양예술고등학교 / 3학년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옆집에선 그릇이 깨지고
놀이터에선 나무젓가락 사이 꽁초가 발견되고
아이는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등을 맞댄 부부는 소주 적신 걸레로 곰팡이를 훔치고
창문은 허공을 예민하게 분할하고
x축을 가로질러 너는 하강곡선을 그렸다

불길한 소문처럼 바람이 불었다
종종 너는 무게를 갖고싶다 했으므로
빈 베란다에 걸터앉아 있었던걸까
주머니에 휴지를 넣고 세탁기에 돌린 것처럼
사람들은 너의 이름을 바쁘게 털어내다가
생각보다 빨리 침묵을 앓았다
아무래도 버림 받아본 적 없이
추락을 생각하는 것은 낯설다

이제 너는 난간 밖에 있는 사람
어쩌면 내가 너의 바깥에
남겨졌는지도 모르지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파트 난간처럼 빽빽한 행간 사이 너를 남겨두는 것

불행은 누군가의 일상이거나
세계의 착한 동력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조금 이기적이고 싶다

월요일 아침부터 놀이터에선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아이는 또 다시 울고
도로의 소음이 검붉은 화단까지 덮는다
허공이 너의 비명을 삼킨

아주 평범한 주말이었다

[차하] 놓쳐진 아이들 (시제:일요일에 생긴 일)

김진이 / 수원 매원고등학교 / 3학년

고아원 뒷마당에서 녹슨 골대처럼 흔들리던 아이들은
종종 죽은 쥐를 발견하고
흙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와도
모두들 발바닥으로 땅을 으깰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달이 떠오를 때 같이 나타난 여자가
집에 가자, 소리 지르고
아이들은 시퍼래진 얼굴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줄 맞춰 걸었다

창가에 매달렸던 별들이
축축한 손바닥을 굴렀던 것에 대해
매일 밤 서로가 차낸 이불을
다시 덮어준 시간에 대해
아이들은 재잘거렸다

저녁 식사를 할 때쯤
비가 내렸다
구름 밖으로 삐져나온 번개는
고아원 지붕을 흔들었다
가장 어린 것들은 서로를 안으며
바들거렸다

가끔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서로의 뺨을 때렸다
아빠도 엄마도 없는 게,
그날은 얻어맞은 광대를 반짝이며
잠이 들었다

다시 놀러간 뒷마당에는 흙무덤이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들은 이토록 쉽게 사라지는 것이 이상했다

제23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수상작 <운문>

등을 낮게 엎드리고 콧잔등 까매질 때까지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쥐는 새끼를 배고 있었다
그것이 자꾸만 생각나서
아이들은 공을 놓쳤다
몇 번이나,

놓쳐진 몸이었다, 아이들은

[차하] 달력의 붉은 부위 (시제:일요일에 생긴 일)

박유진 / 서울 문영여자고등학교 / 3학년

일요일에 가장 바쁜 나
코끼리 슈퍼에서 외상한
소다맛 태업을 질겅질겅 씹는다

정오의 바코드가 연달아 찍히면
언니는 유통기한이 지난 낱말들을 훔쳐올거다
한꺼번에 대야에 넣고
축축한 끄트머리부터 밟았다

활자에 씨눈이 터지면 앞섶을 잠궈
어떤 시간도 이 집을 범람할 수 없어야해

언니는 내 가랑이를 더듬으며
홍조가 사라진 부위마다 다 말린 낱말을 덮어줬다
자주 희롱당한 문장들이 맞물려
언니의 지문이 사라진 시간마다
우리 집 화단에 뿌리를 내렸다
작품이 부족했기에
폭풍전야의 다홍빛 노을은
달력 끝자락에 머물 수 없었다

언니는 미사구를 남발했고
물렁해지는 젖가슴을
일요일 러시아워 틈 사이에 숨겼다

[참방] 무너지는 가게 (시제:일요일에 생긴 일)

서주영 / 서울 서초고등학교 / 3학년

노을이 무너져내렸다

녹슨 노을이 복잡하게 얽힌 골목 위로
엎질러졌다
서늘한 바람이 목 뒤를 스쳤다
초가을, 짓무른 은행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별안간 까마귀 그림자가 재빠르게
내 발끝을 스쳐지나갔다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귓가로 파고든다

아버지는 우두커니 서서
철거되고 있는 해장국집을 바라보셨다
낙엽이 영수증처럼 말려
땅바닥을 나뒹굴었다
“서림 순대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따서 만든
순대국집
24시간 불을 밝혔던 해장국집 간판이
내려앉았다
짙게 먼지를 뒤집어쓴 간판은 모서리마다 거미집이 얽혀 있었다
음식점과 함께 무너지는
또 다른 가게,
‘서림’ 하얗게 빛나던 두 글자도 회색으로 빛바래 버렸다

시린 바람이 쿱쿱한 밥 짓는 냄새를 품고
골목 안에 불어들었다
바람결에 양버즘나무 이파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파도 밀려오는 소리를 냈다
노을에 고개숙인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아버지는 화상자국과 흉터가 가득한 손을 말아쥐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제23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수상작 <운문>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창백한 시멘트 담장 위를
붉게 흘러내린다
일요일 오후
가게가 철거되고 있다

[참방] 피 땀 눈물 (시제:피 땀 눈물)

소수아 / 교하고등학교 / 3학년

고지서 한 마리가 금을 넘고 들어왔다
묵직한 봉투 속 마르지 않은 잉크처럼
벌판이 된 전경 밖으로
뜯겨진 날개를 접으며
녹음이 시든 베란다를 배회하기 시작한다

아버지께 상달된 연락들은 미뤄진 채
풀 한 포기 없는 땅이 비틀려지는 시간
포크레인의 자국들은 집 안 깊숙이 침전되고
부유하는 흙먼지의 궤도 안에서
재개발 표식은 하나 둘 정체되어간다
밭을 대던 물길의 울결에 굳어진 땀자국
농사꾼의 손톱달에 핏물이 맺힐 무렵
종이뭉치에 활자들이 넘쳐 흐르면서
고랑 위로 덩달아 눈물이 흩뿌려진다
대형차들에 삐걱이는 경박한 소음에
시야는
뚝
암전이 됐다

가물어버린 지평선 위로
밀린 싹들의 뿌리가
잿빛으로 조금씩 물들어간다
쓸려나간 흙더미에 앉은
갈 곳을 잃어버린 붉은 지렁이들
힘겹게 지상에 움칠대면서
아지랑이 솟아오른 열기를 맞는다

좌표를 잊은 새들이 떠나간다
우리의 손 끝에
짧은 푸름이 맺혀졌다.

[참방] 흰 (시제:일요일에 생긴 일)

안준서 / 향남고등학교 / 3학년

싸락눈이 소금을 뿌리듯 솔솔 내려
밋밋하던 풍경에 간을 칩니다

흰 면장갑을 낀 사람들이 장례식장
지하에서 관을 들고 걸어 나옵니다
무겁게 찍히는 발자국, 발자국
아스팔트 위 창백하던 흰 눈은
하얗게 짓눌리며 일그러집니다

장례식장 크림빛 건물 쪽에서
한 장정이 종이컵을 홀짝입니다
불어온 바람에 감겨 있는 커피향,
생전 고인이 좋아하던 단맛이
혀의 끝에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흰 개가 나무둥치에 묶인 채 컹컹
큰 소리로 짖고 있습니다
앞선 걸음들을 뒤따르는 흰색 소복들,
손에 들린 흰 국화꽃 몇 송이는 모두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한 줄기 연기로 피어오른 마지막 순간,
끝내 흩어지고 만 향 연기
점점 하얗게 지워질 이 모든 장면들

달력의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그저
순 백색이라면 좋겠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낮달이 파란 하늘의
둥근 공백 같아 보입니다

[참방] 일요일에 생긴 일 (시제:일요일에 생긴 일)

유민 / 고양예술고등학교 / 2학년

빛이 방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
일요일의 틈을 바라봤다
비둘기들이 저마다 무리지어 거리를 오갔고
할아버지의 부고에 갇혀 집은 낯설게 가라앉았다
가족들은 모두 죽음에 가까운 적막을 유지했고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점차 뜻밖의 일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으로 두 눈을 파고든 푸르스름한 빛깔은
어떤 색보다도 차분하게 할아버지를 뒤덮었다
엄마가 할아버지의 배에 머리를 기대어 울어도
나는 그 빛깔에 손끝도 대지 못했다
악몽처럼 차갑게 피부 위로 내려앉을 듯한 색
일요일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만큼의 속도로 할아버지와 나는 멀어져갔다
한번쯤 뒤돌아보면 수많은 표정들이 얽혀있는 일요일
여백처럼 할아버지의 빛깔로 남겨진 일요일을 지나
나는 창문에게 새벽의 틈을 주었다

[참방] 증명사진 (시제:증명사진)

윤성제 / 평택고등학교 / 3학년

2년전에 찍은 증명사진은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
증명사지는 아버지의 삶을
증명하지 못하는 걸까

별이 어둠으로 떨어지고 방문객들은 말이 없었다
슬픔을 붙잡은 얼굴들은 향냄새에 가려지고
아버지 증명사진 위로는 침묵만이 흐른다
사진 속의 시간은 멈추고
창 밖 겨울나무들은 표정없이 셔터를 누른다
눌러질 때 마다 희미해지는 아버지 기억
보이지 않는 검은 발자국들이 오갈 때 마다
밤하늘에 죽어있는 별들
증명사진의 감도를 매만지고 있다

하얗게 인화된 국화꽃들은 사진첩으로 내려 앉는다
렌즈 안쪽으로 굴절된 시간이 흐르고
갈나무 껍질처럼 거친 화질을
달빛 밤안개가 매만지고
가시광선으로 그려진 슬픔들이
어두운 렌즈 안으로 스민다
나의 눈동자 사이와
아버지 초점의 그 사이가 흔들리고 인화되지 않은,
인화지 위로 별들이 툭 툭 떨어지고 있다

증명사진 액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하늘에 박혀있는 별들은
딱딱하게 굳은 입술로 그려져있다
어둠 속, 갈라진 조리개는 이내 아버지의 기억을 담아내지 못하는 걸까

암실처럼 어둠만 깔리는 길
자꾸만 어두워지는 기억들 사이로,
증명되지 않는 아버지의 삶이 흔들리고
영원히 멈춰버린 아버지의 증명사진

[참방] 점성술의 요일

윤예원 / 상산고등학교 / 2학년

헤아리는 손짓들마다 검었지 자전하는 지구본에 언니는 별을 씻어 박아 놓았어 언니가 미래를 만질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 어두운 한나절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걸 꼽던 자정 가끔 비닐로 지은 판옵티콘에 놀러 가면 외벽을 움켜쥐고 천천히 부풀어오르는 언니가 있었어 도처에 널린 별조각들을 몽땅 빨아들이면서

신앙과 성서와 교리를 한꺼번에 입맛대로 조리하자
얼어붙은 경배가 어김없이 시든 소나기처럼 쏟아졌어
그런 식으로 언니는 과거가, 또 과거가 되어갔는데,

내일의 날씨는 맑고 내일의 유서는 짧아요 언니는 언어가 가난해서 점성술을 다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드리면 열리는 먼 별의 조각들 기도 하는 신도가 늘어날수록 언니는 점점 어려지고,
내 키보다 작아진 언니의 머리카락을 헤집자 흐르는 비명들

물혹처럼 솟아오르는 감은 눈의 열망들이 시력을 앗아갔어 우박을 퉁겨내는 손등을 비닐로 감싼 채 언니는 하염없이 계단을 올랐어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린 기온의 유성들 사이엔 정찰탑의 파편이 죽어있었대 소곤거리는 소란들 틈에서 언니는 처음으로 울퉁불퉁한 태양을 다듬기 시작했어 눈이 멀어도 여전히 빛에 젖을 수 있었고 언니는 찬란하게 응고되는 소실점 속에서 일요일에 일어날 마지막 예언을 속삭였어

별의 어제를 다음으로 치환하던 언니는 그렇게 월요일의 새벽을 스스로 도려냈어 흑점엔 아직 입을 맞췄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건 영영 비밀로 남겨두기로 해 풍선이 터지듯 폭발한 잔해는 다른 날짜들을 그려내겠지 지구본의 별은 반짝거리고, 모체의 부재 속에서 예언처럼 태양의 요일이 지나가는 중이야

[참방] 증명사진 (시제:증명사진)

이주현 / 안양예술고등학교 / 2학년

계속 사진을 바라본다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려는 것처럼
그러면 착각을 한다, 눈동자가 굴러간 것 같아

지금은 연락이 끊긴 고모는 사진을 보면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사진에는 성대가 없어요, 고모
말하진 않았다

오늘부터 아버지 대신 증명사진이 앉아있을 거라고 했다
아빠가 주인공인데 왜 사진이 대신 있어요
엄마는 사진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 사진, 젊게 나왔다고도 하고 양복은 합성이라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깔끔한 양복 한 번 입을 일이 없었나
생각하지만 역시 그랬던 것 같다

사진에 대고 묻는다
누군가 당신을 보며 이렇게 운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모인 적이 있나요
조용히 향이 부서진다

아버지의 키보다 높은 사진을 보며 목을 젖힌다
아픈 목을 잊기 위해 생각한다
온기도 흐르지 않는 사진에
의미를 부여해가는 건 어째서일까

증명사진이라고 해서
이게 아버지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보다 보면 목소리를 잊어버린다

잠시 한 식탁에 앉는 꿈을 꾼다
아버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윽고 사진이 된다

[참방] 일요일에 생긴 일 (시제:일요일에 생긴 일)

이지희 / 선일여자고등학교 / 3학년

귓가로 칼날들이 몸을 부딪히는 소리가 박히던 일요일
엄마는 마침내 화장대를 뒤집었다
먼지와 함께 뒤엉키던 머리카락과
다 갈라진 장판 위를 수놓던 립스틱 자국
깨진 틈새 사이로 흘러나오는 로션은 끈적해
열린 방문의 틈새로는 가려지지 못한 대화들이 새어나왔다

이어폰을 두 귀에 깊숙이, 나는
엄마, 나는 눈치가 빨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충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토끼눈이 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지
의젓해져야지, 여자들은 당신을 좋아해
와인색 가죽의 소파와
한 달 째 집을 비운 엄마의 자리
자격이 없는 여름 햇빛과
욕설을 내뱉듯 내리는 소나기
손 벌리는 일은 줄이고 그 말도 좀 줄여라
죽이면 더 좋고
집이라는 저승 속에서

나는 19년을 이방인으로 살아온 사람
애초에 나는 집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는 걸요
사진 속에서는 조커처럼 미소지었어
그러나 내가 가진 패는 늘, 클로버 뿐
엄마 나는 아직 못나가요
점점 커져가는 내 발은 나만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밖은 여름인데 방안은 겨울에 오래 머물렀다
동면, 동면해가는 식구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고
가족이란 이름의 저승 따윈 그냥 없애버려요
그 지옥같던 일요일, 나는

제23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수상작 <운문>

와인색의 소파 위에서 당신의 자국이
희미해질 때까지 엎드려 울었어

[참방] 지갑 (시제:증명사진)

임수빈 / 서울 성심여자고등학교 / 3학년

지갑을 주웠다
얼굴에 각질이 인 것처럼
갈라진 가죽 원단은
끝단 처리가 엉성했다

누구의 것일까
오천원 지폐만큼 가벼운 지갑
나는 가볍게 웃으며
신분증을 끄집어냈다

무지개 빛이 감도는 사진 속
주름없이 깨끗한 웃음을 띄고
나타난 여자의 얼굴
진한 색조 탓일까
어딘지 어색하게 다가왔다

여자의 입과 눈과 코를
하나하나 뜯어보다 나는
흩어진 조각을 짜맞춰
익숙한 얼굴을 완성했다

사진보다 지갑에 가까운
지금의 여자는
커튼에 재단된 볕 아래서
화장품 샘플을 밀어올리고 있다

먼지 낀 거울 앞에 앉아
주름과 사투를 벌이는 엄마
나는 배경처럼 서서 바라보다
엄마의 외투 주머니를 통해
지갑을 돌려드렸다

[참방] 피 땀 눈물 (시제:피 땀 눈물)

조혜빈 / 상현고등학교 / 3학년

만대마을 양식장,
논 크기의 바닷물을 밀대로 미는
할아버지의 등을 배경으로
소금의 결정이 반짝인다

물기 머금은 걸레처럼 주름진
할아버지 목 퍼런 핏줄을 따라
땀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물기를 짜내듯 꺼끌한 손가락으로
목을 쓸어내리는 할아버지
절여진 땀방울이 흩어져
바닷물 아래로 떨어진다
허릿춤에 찬 물을 벌컥 들이키자,
햇빛과 바람도 목이 마른지
논 식탁 위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간다
1단씩 올라갈수록 짜지는 바닷물
그마저도 물 밖에 농이지 않은
이 초졸한 식탁에서,
할아버지는 쌀밥처럼
하얀 소금을 기다리며
대기가 더 건조해지길 바라고 있다

할아버지의 몸이 바닷물에 젖어간다
바닷물이 머금은 피 땀 눈물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식탁에 물기가 증발하고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눈 쌓인 산처럼 하얀 기둥을
여러 개 세울 것이다

풍성해질 식탁을 기다리며,
할아버지는 자신을 머금은
대패질을 하고 있다